

고려인삼의 진면목을 팔자



하광학 | 2011금산
세계인삼엑스포조직
위원회 교역운영부장

약 15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고려인삼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교수단과 교역상품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고려인삼에 관한 대표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중국 양나라의 도홍경은 중국 삼과 백제삼(고려인삼)을 비교하면서 '백제삼은 형태가 기늘고 견고하며 희다'라고 했으며 '중국삼은 크나 연하고 허하여 백제삼만 못하다'라고 할 정도로 백제삼을 극찬하고 있다.

또 18세기경 프랑스의 지리학자 당빌은 한국을 일컬어 '인삼과 모자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고려인삼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숭한 역사기록과 전설 일화를 갖고 있는 고려인삼은 우리지역의 금산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지역에서 다양하게 분포 재배되면서 고려인삼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금산지역은 과거 7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최대의 재배면적을 자랑할 정도였으나 인삼의 특성상 연작재배가 불가능하여 현재는 약 5%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작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금산지역 경작자들은 전국의 각 지역을 찾아가 임대차 경작을 통해 인삼을 수확하여 금산 인삼시장으로 수송해 오면서 전국 생산량의 약 70%가 거래되고 있고, 금산군민 전체인구의 약 50% 이상이 인삼약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전국 최대 집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삼하면 금산, 금산하면 인삼'이라는 공식이 통하고 있으며 지금도 고려인삼의 옛 명성을 당당하게 이어오고 있다. 가히 금산의 인삼생산농가와 유통 상인들의 근면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의 문화상징 베스트10, 대한민국의 3대 이미지상품(인삼, 김치, 태권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함께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러한 고려인삼에 위기가 닥쳐왔다.

서양삼(화기삼)을 비롯한 중국삼, 미국삼(야생삼) 등 전 세계적으로 인삼이

대량 재배되고 있어 외국삼의 물량공세가 심상치 않다.

또 인삼을 먹으면 열을 내게 한다는 승열작용설 (외국인의 판촉전략?) 유포와 외국삼의 부정유통 및 잔류 위해성분 검출 의혹, 한미 FTA 협상체결 등 인삼산업 종사자들의 고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인삼산업의 전문가와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현지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외국인들도 고려인삼의 효능과 우수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나 판촉 전략이나 가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국삼과 비교해 볼 때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악재들이 가로놓여 있다고 해서 움츠려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9. 2일부터 10. 3일까지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와 인삼시장 일원에서 '생명의 뿌리, 인삼'이라는 주제로 32일간 개최된다.

인삼엑스포, 과연 무엇을 팔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행사기간 동안 단순히 관람객들을 많이 불러들여 당장의 잇속만 챙기면 된다는 속셈은 접어야 한다. 그야말로 인삼산업의 먼 장래를 위해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다.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한 연구개발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우수한 제품의 생산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명품화시켜 나가는 일에 조직위원회와 금산군, 인삼생산 및 유통상인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제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앞으로 약 5개월 남았다. 금년 엑스포는 2006인삼엑스포와 비교해서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

워야 한다. 행사가 오픈되자마자 관람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그 소문이 꼬리를 물어 구름처럼 몰려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석학 등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고려인삼 효능의 우수성에 대한 열띤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나 인삼수출의 가장 장애요인이었던 승열작용설에 대해 역공세를 펼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효능홍보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그동안 청소년층에게는 인삼이 기피의 대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인삼의 효능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인삼과 보다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

인삼생산 및 유통상인 역시 청정인삼의 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은 인삼이 만에 하나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누가 다시 인삼을 찾겠는가를 되새겨 보고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부정인삼 유통 및 바가지요금 근절 등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항상 쾌적한 시장환경의 조성과 친절한 손님맞이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조직위원회와 금산군의 다양한 글로벌 홍보마케팅 전략과 함께 우리 인삼산업인 모두가 청정인삼의 생산과 다양한 고품질 명품개발을 통해 세계를 향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때 인삼엑스포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으며 우리 인삼산업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고려인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인삼산업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이다.